

광주 수완택지 수백억 개발 이익

부동산경기 최악 불구 200억 넘을 듯

광주시 - 토지공사 이익금 분배 논란

광주시와 한국토지공사가 수완지 택지개발 사업으로 수백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주택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개발 이익금 분배방식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9일 한국토지공사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광주수완지

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데 따라 토공과 수완지구 개발로 발생한 이익금 산정을 놓고 조만간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001년 체결한 협약

에 따라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받아야 하지만 자칫 광주시가 땅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토지공사는 개발이익금이 산정되면 '협약'내용에 따라 '토지'로 납부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토지공사측은 개발이익금이 산정되면 '협약'내용에 따라 '토지'로 납부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운용사들이 계열 증권사의 약정을 높여주기 위해 거래회전율을 높이거나, 심지어 다른 운용사와 담합해 계열 증권사들에 교차주문을 내는 사례까지 있었으나 이번에 매매·중개수수료가 공개되면 이를 예방



최근 개발이 완료된 광주 수완 택지개발지구(면적 463만1천21.6㎡) 전경. 광주시와 토지공사측이 거둬들일 수완지구 개발 이익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로 보고 이 협약에 따라 최소 100억원은 챙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협약서상 '토지'로 개발이익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협약서 변경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토지'로 받아야 하지만 자칫 광주시가 땅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토지공사는 개발이익금이 산정되면 '협약'내용에 따라 '토지'로 납부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토지공사측은 개발이익금이 산정되면 '협약'내용에 따라 '토지'로 납부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운용사들이 계열 증권사의 약정을 높여주기 위해 거래회전율을 높이거나, 심지어 다른 운용사와 담합해 계열 증권사들에 교차주문을 내는 사례까지 있었으나 이번에 매매·중개수수료가 공개되면 이를 예방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운용사가 계열 증권사에 낼 수 있는 주문의 한도는 2006년 4월 까지 총 주식매매금액의 20%였으나 이후 50%로 확대됐으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완전히 없어졌다.

업계는 또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TER에 매매·중개수수료가 포함돼 있지 않아 현행 공시에 나타난 TER으로는 다른 국가의 펀드 비용과 비교가 불가능했으나 이번에 제도 변경으로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졌다.

/연합뉴스

노점상·영세업자 신용보증 급증

광주신보, 1월에만 782건에 128억 공급

경기침체속에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올들어 재래시장 상인과 노점상, 무점포 사업자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규모가 급증해 지난달 782건에 128억원을 공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9건, 49억원에 비해 견수는 293%, 금액으로는 161% 급증한 수치다.

광주신보는 지난해에도 지역 소상인 및 소상공인 등에게 영세 자영업자특례보증과 유통상지원특별보증 등을 통해 총 960억원을 지원해 목표대비 63%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규모가 급증한 원인은 경기침체속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금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광주신보가 지난해 말 자본금 출연으로 보증재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

이다.

광주신보는 이에따라 올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규모를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166%, 금액으로는 67% 늘려 2만건에 1천6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업체당 최고 1천만원부터 최저 300만원 한도내에서 최장 5년까지 보증할 계획이다.

광주신보 관계자는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보증료도 1% 낮출 계획"이라며 "신보재단과 동사무소,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선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실사가 사실상 중단되기도 했다.

대한조선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이 CEO로서 조선소를 부실경영해 워크 아웃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이사진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은 대한조선 이사회에 권리"이라며 "자금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조선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대한조선, 김호충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 부실경영 책임 물어
박재영 부회장 대표직 수행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조선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호충 사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

대한조선은 9일 해남 조선소 현장에서 이사회를 갖고 김 사장을 대표

이사직에서 보직해임하고 박재영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도록 했다.

김 전 사장은 대한조선에 대한 워크아웃이 시작된 후 인사와 자금 등 조선소 경영전반에 관한 개입을 요구하는 채권단에 협력해 사측 경영진과 불화를 빚어왔다. 특히 채권단 실사를 이끄는 산업은행이 김 전 사장을 경영관리인에 선임하려 하자 대한조

선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실사가 사실상 중단되기도 했다.

대한조선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이 CEO로서 조선소를 부실경영해 워크 아웃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이사진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은 대한조선 이사회에 권리"이라며 "자금지원이 정상적

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조선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건설·조선사 2차 구조조정

98개 건설·조선업체에 대한 2차 구조조정대상 선정작업이 다음달 중순 시작된다.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당초 이달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금융권의 신용공여 50억원 이상인 시장능력 101~300위의 건설사 94곳과 종소 조선사 4곳의 구조조정을 위한 신용위험 평가를 다음달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의 현 재무상태를 반영도록 하기 위해 2008회계연도 확정 재무제표를 신용위험 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외부감사를 받은 2008회계연도 결산자료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에 확정, 발표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는 늦어지더라도 다음달 중순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은행은 다음달까지 광주VISA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신학기 사은행사를 한다.

광주VISA카드로 교복과 책을 구입할 경우 5% 캐시백 적립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 구입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은행 제공)

상호금융대상 평가

광주축협 전국 1위

농협중앙회는 9일 광주축협(조합장 안명수)이 '2008년 상호금융대상 평가'에서 C1그룹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여·수신규모에 따라 A1에서 F3까지 22개 그룹단위로 평가된 이번 종합평가결과 광주축협이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순천원예농협(조합장 허창주)은 C2그룹 전국 3위, 광양원예농협(조합장 김영배)은 F1그룹 전국 3위, 광주원예농협(조합장 박종재)은 C1그룹 전국 4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종태기자 jtlee@

펀드·주식 단타매매 함부로 못한다

운용사들, 중개 수수료 투자자에 공개

그동안 운용과 판매, 수탁 등 각종 보수와 운용 관련 비용을 모두 합친 펀드의 종비용(TER)이 함께 포함돼 공시됐던 각종 매매·증개수수료, 채권과 선물 등의 매매수수료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운용사들이 계열 증권사의 약정을 높여주기 위해 거래회전율을 높이거나, 심지어 다른 운용사와 담합해 계열 증권사들에 교차주문을 내는 사례까지 있었으나 이번에 매매·

증개수수료가 별도로 분리돼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TER 공시제도를 변경해 이번주 종으로

이번부터 별도로 공시되는 내용은 상장 또는 등록주식과 장내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운용사가 계열 증권사에 낼 수 있는 주문의 한도는 2006년 4월 까지 총 주식매매금액의 20%였으나 이후 50%로 확대됐으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완전히 없어졌다.

업계는 또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TER에 매매·증개수수료가 포함돼 있지 않아 현행 공시에 나타난 TER으로는 다른 국가의 펀드 비용과 비교가 불가능했으나 이번에 제도 변경으로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졌다.

무디스, 국내 8개 은행 신용등급 'A2'로 하향조정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낮췄다.

무디스는 9일 신용등급(장기외화표시채권등급)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보다 높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8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국

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8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국

가신용등급과 같은 'A2'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등급전망은 산업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안정적'으로 제시했으며, 산업은행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 은행들이 금융위기로 외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신용등급을 정부의 외화조달 능력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미용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광주 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

초광주 성형외과	02-226-0575
미식원 성형외과	02-226-0500
파마스 성형외과	02-263-0075
파디힐 성형외과	02-562-1425
박종근 성형외과	02-230-3300
오현근 성형외과	02-265-0003
김봉식 성형외과	02-734-7771
김봉석 성형외과	02-225-0777